

근로능력이 부족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경험

Single Mothers' Experiences of Public Support Service: The Case Study of Single Mothers Who are Lack of Work Ability

성정현*, 김지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Jung-Huyn Sung(sung4381@hanmail.net)*, Ji-Hye Kim(tochee@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여성한부모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대~50대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급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들은 일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수없이 시도하였으나 좋지 않은 건강과 일을 배우는데 드는 비용, 자녀양육부담,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상의 점수 등으로 본인의 계획을 관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어머니로서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강화되고, 또 자녀에게 부적절한 훈육과 양육으로 투사되었다. 이는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자격 평가 기준에 따른 좌절의 반복과 심신의 건강의 악화로 근로무능력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자로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결론에서 근로능력 판정제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근로무능력 | 여성한부모 | 공공부조서비스 | 심리정서적 경험 | 우울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tilizing experience of public support service of the single mothers, who have been assessed as inability in aspect of labor. For this purpose of this study, we had in-depth interview five interviewees who had adolescent children or non-adult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from 20s to 50s.

From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 figured out that they had attempted to escape from the poor realities of life and to help the family budget through their work. However, they could not have plans to fulfill their aims, because of the unhealthy body conditions, the high working costs, the burdens for parenting or child-rearing, and the low levels of working ability. It has been shown that their parenting stresses and depressions from their hard realities have been reinforced, and those psycho-emotional pressures have been projected to connect with the inappropriate disciplines and parenting or child-rearing. And it has been reinforced through utilizing public support service. Consequently, they have become chronic through the repeated disappointment and unhealthy psycho-emotional condition.

In this study, we discussed and proposed the labor policies and practical suggestions which have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fficient judgement systems for work inability.

■ **keyword** : | Work Inability | Single Mothers | Public Support Service | Psycho-Emotional Experience |

I. 서론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1,820만6천 가구이며, 이중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49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0년도의 18.5%와 비교하면 약 8.9%나 증가한 것이다.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성수급자도 증가하였다. 201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서 전체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약 60.3%에 이른다. 그리고 이 중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건부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청년기와 중년기는 각각 11.3%, 31.9%로 총 43.1%를 차지하고 있다[1].

일반적으로 청년기와 중년기는 노동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인식된다. 그러나 개인적, 환경적 조건의 여의치 않을 때 이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수급자의 자격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대한 타당하고 신뢰할만한 증거의 제기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즉 몇 개월의 요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 31일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판정제도가 시행고지 될 당시부터 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즉, 근로능력의 개념에서부터 판정체계, 그리고 차별과 낙인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능력판정제도는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방법이 갖는 수혜대상의 한계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위기상황과 일과 가족을 양립해야 하는 빈곤 여성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2-4], 수급자로서 경험하는 낙인감과 차별, 우울 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 등의 한계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5]. 이런 가운데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음으로써 근로무능력자로 구분되는 것은 차질 중년기 여성들의 좌절감과

우울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자활 및 근로의욕의 문제 및 관련 요인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어왔으며[6-8], 근로무능력 한 상태로 판정을 받은 이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빈곤여성들이 공공부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며,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시 내면화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무능력 한 상태에 있는 빈곤한 어머니로서, 공공부조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주관적 경험을 알아보고, 빈곤여성들이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어려움까지 중첩되면서 어떻게 수급자로서의 지위에 고착되어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은 여성한부모들의 탈빈곤에 대한 인식과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경험 속에서 어떠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이들은 어떻게 수급자 지위에 고착되어 가는가?

II. 선행 연구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판정 체계

과거 40년간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적인 차원에서 시행되어온 생활보호제도가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함으로써 빈곤선 이하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여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또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자활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9]. 2012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수급을 받는 대상은 총 4,017,271건에 이르며, 이중 일반수급자가 3,856,062건으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가구특성을 보면, 여성가구주로 구분되는 경우는 약 340,769가구이

며[1], 이 중 노인세대가 약 69.43%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을 받고 있는 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도 자체가 근로능력이 있어도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현 제도로는 근로유인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근로의욕의 유지 및 제고’가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정책 목표에 우선하지 않는 점을 들어 근로능력자를 수급에서 분리하는 것에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10]와 근로능력유무에 따른 대상자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빈곤정책의 목표와 효과달성 면에서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자 가구의 근로의욕 감퇴 혹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능력자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시키거나 혹은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12].

이런 가운데 2010년에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판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실행 중에 있다. 규정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자, 임산부,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13]. 이 규정에 의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된 대상자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2009년도에 49만 명으로 추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2013년 현재에도 약 5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조정하는 부정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근로능력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고 의미도 모호하며, 법의 취지가 근로능력 자체를 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과외의 실효성을 판정하기 위한 것에 있는데, 이를 과대 해석하고 있는 점, 또 의학적 평가와 활동 능력 평가라는 이원화된 평

가가 모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활동평가에 포함된 외모관리, 자신감, 자기통제 등은 객관적 평가가 의문시 되는 점, 근로능력은 개인적 여건뿐 아니라 환경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되는데,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14][15].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실제 참여연대[15]는 국가인권위에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정책 권고를 요청하였으며,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와 전담공무원 인력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의 판정기준은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정신 장애인으로 판정받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부정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 근로능력 평가 이후 의료기관 간 편차, 지자체 간 판정비용 편차 과다 및 판정부실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심사와 활동능력조사를 모두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실행되고 있다 [16].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체계에서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기타 중대한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근로를 희망한다고 해도 판정점수에 따라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되어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부족하여도 근로희망자는 일을 할 수 있는 체계였으나 근로능력판정체계로 개편된 이후에는 오히려 근로의욕이 있는 자라도 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개념 및 판정의 문제와 함께 근로의지가 있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되어 공공부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한부모들의 서비스 이용경험과 어려움 등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도덕적 경제논리(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성공)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복지수급권자들을 정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으며, 통제가 필요한 사람들로 치부하여 왔다. 특히 ‘복지수급을 받는 모’는 가치 없고, 게으르고, 의존적이며, 무책임한 존재, 부도덕한 존

제로 폼하되며 낙인화되어 왔다[17].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수급권 심사 과정과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공 부조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된다[18][19]. Stuber 와 Schlesinger[19]는 자산 조사에 기반을 둔 정부 프로그램들이 수급권자들이 낙인을 내면화하고 타인들(관련 직원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처럼 복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빈곤을 규정짓는 부정적인 편견과 평가에 직면하는 것이며, 빈곤층에게 ‘복지’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매개하는 통로[20]이며 낙인을 경험하고 내면화 하는 과정이 된다[5].

국내의 연구에서도 복지 수급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개인의 결함이나 문제 등으로 치부되어 오던 것에서 [21]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 경험과 이러한 낙인 경험이 수급권자들의 자기 인식과 자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제기되고 있다[5]. 이희연[22]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복지 제도 안에서 조차 수급권자들이 타자화되며 배제가 심화되는 현실을 논하였다. 또한 가난한 이혼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4]에서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제도적 문제가 이혼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제 시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빈곤한 이혼 여성들은 공적복지제도에 진입하는 것 조차 어려웠으며, 복지급여의 자격 검증 과정과 서비스 전달 과정, 조건부 노동 안에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며, 탈빈곤의 희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낙인과 타인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낙인은 개인의 정신건강, 우울과도 관련이 있다. HIV/AIDS 환자들[23], 정신지체 아동의 부모들[24], 정신 질환이 있고 약물남용을 하는 사람들[25] 사이에 인지된 낙인과 우울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또한 사회적 낙인은 자기 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평가 절하 함으로써 자기(self)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나 결과들을 제한함으로써 자기관(self-views)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26].

이와 같은 경우처럼, 공공 부조와 빈곤에 따르는 낙인은 수급권자들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Nichols-Casebolt[27]는 소득조사가 동반되는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수급자의 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소득조사 프로그램이 수급자를 사회적 규범과 가치로부터 벗어난 일탈자로 규정하고,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탈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수급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면화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는 수급자의 무감정과 무력감을 유발하는데, 수급자는 자신이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직면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28]. 또한, Mickelson 외[29]는 인지된 낙인과 우울간의 관계가 자존감과 도움거절에 대한 두려움 의해 매개되는 구조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내면화된 낙인이 이 두 요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즉, 낙인이 내면화되면서 자기 가치감과 관계망의 반응에 대하여 왜곡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도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데, 낙인화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그 개인을 사회에 통합하도록 규범에의 동조를 유도한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게 될 수 있다[26]. 이처럼 복지 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폼하, 부정적인 편견에 따른 수치심은 여성들의 자립의지와 자존감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자원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5].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빈

근여성가장을 대상으로 공공부조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근로무능력자로 판정된 5명의 한부모여성과 2012년 1월~2월 사이에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라포 형성을 위한 초기면접을 포함하여 2~9회 이루어졌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이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한참 근로할 수 있는 중장년기의 여성들이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고 공공부조서비스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경험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삶의 현실과 서비스 이용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차원의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경험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일반화되고 사회적인 경험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다시 재경험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연구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색출하는데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개인적 경험과 의견, 느낌 등을 직접 인용할 수 있고, 그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특출나게 보이는 문제영역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빈곤여성 중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둘째, 우울감을 비롯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해 근로무능력자로서 수급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대상자, 셋째, 이혼 혹은 사별이나 이별을 경험한 한부모 여성인 자를 소개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복지관에서 추천한 여성들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적 사항이나 현재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수급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이용과정 중 경험하는 어려움과 욕구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약 60분~90시간 정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접을 녹취 이후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면접을 통해 보완하였다. 면접 자료는 현장노트와 녹음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축어하여,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기술 및 분석과정에서 의미 이해가 어렵거나 다른 사례와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전화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료는 면접대상자별로 2회 이상 정독하였으며, 공동연구자들이 면접 자료를 축어하여 동시에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자 삼각측량법과 자료수집기간동안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이슈들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이를 주제 형태로 다시 서술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령이 26세부터 56세까지 다양하지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참여자중 C, D, E는 사실혼 관계에서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혹은 재결합가족을 형성하여 전배우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애주기에 비해 자녀의 연령이 낮은 편다. 참여자의 혼인상태는 사실혼, 혹은 결혼 후 이혼상태이다. 동거가족은 A를 제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참여자	연령	학력	현 혼인지위 및 원인	참고사항
A	26	중학교 중퇴	미혼모 (외도, 가출) -동거가족: 부(67), 모(56), 아들(7), 딸(2)	부는 알콜성치매 모는 정신분열증 아들은 그룹홈 입소중 본인이 척추협착증, 자살시도 경험
B	33	고졸	이혼 (폭력, 의처증) -동거가족: 아들(8)	본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아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소 경험 있음
C	45	고졸	재결합가족(남편도박) -동거가족: 아들(20), 딸(16)	본인이 뇌병변 장애 1급
D	56		사실혼(남편가출로 이혼) -동거가족: 딸(17)	본인이 우울증, 척추측만증
E	49	고졸	이혼(남편폭력) -동거가족 : 아들 2(14, 11)	남편 폭력으로 달팽이관 손상

외하고는 대부분 한부모-자녀관계로 구성된 2세대 가족이다. 참여자들과 가족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참여자중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가 4명이며, E는 폭력의 후유증을 겪고 있고, A와 D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다. C는 남편의 도박문제로 뇌출혈을 겪으면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다. 한편 참여자들 중 A는 자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한 상태이며, B는 과거에 아들이 그룹홈에 입소했던 적이 있다.

IV. 연구 결과

1. 탈수급에 대한 인식과 삶의 현실

1.1 일을 하고 싶음

①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한 창피했던 기억

참여자 모두 이혼상태에 있으며, D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겪었다. 이들은 결혼 후에도 가난했지만, 정작 수급자가 된 것은 이혼을 한 이후이다. C는 이혼하면서 전배우자의 빚을 떠안았으며, 다른 참여자들도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결혼기간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어 생계와 자녀양육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탈수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 A는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현재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B는 며칠 전부터 본인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특히 B는 어릴 때에 가난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물품을 받아와야 했고, 그때 당시 느꼈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어려서 친척 집과 함께 살면서 친척들 앞에서 무력했던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는 매우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당시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수급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려워 이들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배우

고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큰 상태였다.

어렸을 때 집 가난했어도 수급자 안 받았어요. 엄마 파출부 나가고, 아빠 사슴목장 가시고 하면서도. 어릴때는 집이 창피했어요. 동사무소 가서 쓰레기봉투 받아오고.. 이런 게 창피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지금 아들이 겪을 내 모습이라는거, 아들 하나 있으니까 애 때문에 살고 있는데. 벗어나겠다고.(B).

② 빈곤을 대물림 하고 싶지 않음

이들이 수급권자에 머물지 않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일하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처럼 아들에게 공공부조대상자가 되는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으로 인한 낙인감과 차별,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벗어나 어머니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자녀가 성장해가는 데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점차 퇴색되고 이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애가 2학년인데 수급자 모르잖아요. 커가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프고,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B).

아이가 학교 가서 만약에 선생님이 '너희 엄마 뭐하시니?'라고 물어보면.. 요즘에 전업주부 라고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다시 배우던 거를 그만두면, 2년씩 다시 미뤄지면, 포기를 생각하면 미칠 거 같아.(A).

1.2 반복적 도전

20대와 30대의 참여자인 A와 B는 일을 할 수 없고 교육을 받을 수 없어도 계속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변의 수급권자 언니들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비 지원이나 직업훈련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반면, 40대와 50대의 참여자들은 정규적인 일보다는 돈이 될 만한 일이면 단발적인 일을 끊임없이 찾았다.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이 경제적 빈곤의 출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모두 같지만, 그 방안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동부랑 전화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한 건데, 돈은 되는데 배울 기관이 없더라고요. 있어도 부천이긴 한데.. 기간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돼! 이라고.(A)

설문조사하고.. 컴퓨터 하면서.. 그러면 3000원 통장으로 들어와요. 많지는 않지만(D).

1.3 탈빈곤을 막는 악순환의 현실

① 최악의 건강

D는 앓아있는 것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밤에는 경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낮에 시도 때도 없이 졸다. 또 A는 하루 종일 잠이 쏟아져 커피를 식사대용으로 할 정도로 커피를 입에 달고 산다. 그 만큼 디스크 때문에 몸이 고달파 약을 먹으면 약에 취해 하루 종일 잠을 자기 때문에 일상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기 어렵다. 또 C는 추운 겨울에는 몸이 얼음장 같아 저리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이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렇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수급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들이 일을 배우거나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탈빈곤을 위해 수급에서 조건부수급으로 바꾸어 자활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해도 좋지 않은 건강, 특히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오히려 탈수급을 지지하는 정부기관에서조차 이를 수용하지 않는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자신들이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는 것처럼 느꼈다. 이런 무능력감과 자신없음은 어린 자녀와 놀아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잠든 아이를 깨워 몸을 주무르게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되니까. 10분마다 자요. 10분마다 졸음이 온다고..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깜박.. 밥 먹다가도 탁 떨어져요. 병원 갔더니 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거래...자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자다가 아이 깨우

고.. 재를 어떻게 해놓고 죽어야지. 죽더라도.. 옆이라도 있어야지(D).

하루 일과가 약 먹고 쉬는 거고.. 애기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정신과 가서 상담해서 약을 늘리고 왔어요. 피부과 가서 진단 받았는데 습관성, 신경성으로 피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A).

② 사면초과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혹은 시간제 노동이나 부업을 통해 얼마간의 저축을 하고자 해도 이들이 처한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었다. 현실이 너무 절박하여 한 달 앞의 미래를 준비하기조차 어려웠다. C는 집세가 계속 밀리다 결국에는 공과금을 여러 달 내지 못하면서 전기불이 끊기는 경험을 했다. A는 연구자를 만나는 시점에 이미 여러 달 임대주택의 집세를 내지 못해 한겨울에 집을 내주고 나와야 하는 실정이었다. 알코올성 치매인 아버지와 간질인 어머니, 어린 딸, 며칠 후면 그룹홈에서 잠시 다녀갈 아들이 머물 집을 당장 내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A가 4인의 수급비를 받으면서도 집세를 내지 못하는 것은 네일아트 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를 오가면서 대중교통비가 많이 들고 또 네일아트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데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었다. 탈빈곤을 위해 직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동안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또 A만의 일도 아니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탈수급을 원하지만 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준비기간 동안의 생계지원이 미흡하여 번번이 교육이수 및 직업훈련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포기를 고민하였다.

집세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하다가. 내고 모자란 거 채우고.. 전깃불이 끊어져가지고, 깜깜한데.. 와 말도 못해요(C)

차비도 12~13만원 되요. 눈 오고 그럴 땐 시간 오래 되서 환승도 안 되고.. 처음에 네일아트 할 때는 재료비가 얼마 안 되요. 다 주니까.. 근데 배우면서는 이것저것

사야 되요. 한 30~40만원. 아침에 등기가 왔더라고요. 이 달까지 안내면 방을 빼라. 방 한 칸에 4명에서 사는데 큰 애오면 그 좁은 집에서. 집에서 올라 왔어요. 큰 애를 그룹 홈에 보내고 나서 생활비가 확 줄고.(A)

③ 자녀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참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곧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다. 자녀 등록금이나 급식비를 내지 못할 때, 또 혼자 지낼 시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참여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본인이 가난해서 못 배운 현실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기대가 충돌할 때 그것은 곧 부담이라는 짐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대해 극단적으로 아이를 시설이나 전배우자에게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곤 했다.

크리스마스에도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 엄마가 사줄게 이랬지만 장난감가게 가니까 7~8만원 이걸 어떻게 사주지... 그러니까 포기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A).

집은 집인데 애를 보낸 뒤에도 한 번도 집이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집이라고 생각한 게.. 학교도 일찍 끝나고, 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 전주 가라고 아빠한테 전화한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말 잘 들으라고.(B).

이것은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애정과 잘 키워보겠다는 열망, 그리고 빈곤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열망이 해당공무원과의 전화 통화나 면담을 통해 좌절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좋지 않은 건강으로 누워만 있는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망감의 원천이 곧 자녀라는 인식을 하면서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방법인 구타와 내던지기, 시설이나 전배우자집으로 보내는 방안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는 곧 자녀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애가 전화로 그래요 '엄마 나 버릴거 아니냐고. 아 '엄마가 나 그룹홈에 보냈잖아..',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작

은방 가서 혼자서 울었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A)

④ 사회적 지지의 부재

빈곤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공적 이전보다 사적 이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남성에게 비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런 사적 이전에 의존할 만한 사회적 지지망조차 매우 부족하고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나마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오로지 B뿐이었고, 다른 참여자들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오히려 간혹 집에 들러 현금을 갈취해가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들이 의존할 곳은 원가족도 아니고, 오로지 복지관을 통한 지역사회기관들이나 지역주민의 간헐적인 호의 정도였다. 이 역시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갈 때 긴급구조의 차원에서 복지관의 자원발굴과 연계를 통해 위기를 모면할 정도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내외적 지원망의 강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애 아빠를 항상 '이 인간이'이라 불러요. 이혼하고 나서 2009년도 인가? 50만원씩 주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는데. 월세도 안 밀리고.. 저축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인간이 생활이 어렵다고 50만→30만원으로 줄이고.. 내 연락도 차단하고.. 연락이 안돼요.(B)

제일 큰 건.. 기대고는 싶은데 그런 데는 없고, 말하고는 싶은데, 속내를 다 털어 놓을 사람도 없고.. 기대고 싶은데 내가 등대마냥.. 왜냐면 나없으면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다 무너지니까.. (A).

진짜 힘들었어요.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옆에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상담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리신 분이라 자존심도 상하고.. 죽고 싶었어요. 얘기해봐야 나만 초라해지고. 자격지심 때문에 위축도 되고(E).

참여자들이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스스로 대처자원이나 힘도 고갈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분노표출, 울기, 철회, 불안, 알코올남용 등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활용하고 있

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대처를 활용하는 것은 우선 이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이들의 문제를 표출하고 지지받을 대상이 부족한 현실과 연관된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오로지 복지관 담당자 외에는 없는 것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점점 더 부정적 대처를 활용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탈빈곤을 위한 계획과 기대는 좋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교육이수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경제적 여건, 그리고 노동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한계 때문에 무너지고, 이런 현실은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경험은 이들로 하여금 좌절과 수치심, 무력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부정적인 정서가 심화되는데 기여하였다.

2. 서비스 이용경험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2.1 자녀에게 '가난한 엄마' 로 인식되어 슬픔

자녀의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참여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과 여러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부조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빈곤이 대내외적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삶이며, '가난한 자'로서의 낙인과 수치심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난한 엄마'로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 가정 형편을 걱정하며 일찍 철이 든 자녀가 고맙기도 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의 욕구와 바람을 들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엄마로서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돈을 못 버는 자신을 자책하며 우울한 감정이 들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정신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참여자도 있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일부터 알릴 필요는 없었어.. 엄마로서 무능력한 엄마로 보여 주는 거.. 아직 아이가 산타가 있다고 믿어서 새벽에 선물 놓고 자고 일어나면 산타가 있

다고 믿고 좋아하더라고요. 동네 형이 산타가 없다고 그 전날 그랬는데 형아한테 가서 자랑하고 오겠다고.. 산타 없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너네 엄마가 사다준 거라고 했나봐요. 그런데 애는 우리엄마 이런 거 사줄 돈도 없고 사주지도 않는다고. 그 말 듣고, 엄마가 가난해? 왜 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 홍보고 그런거냐고.(B)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돈을 못 벌어서.. 몸이 아프고.. 우울한 감정이 더 커요. 하여튼..생활이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우울해서 돌아다녀요. 누워있는 성격이 못 되가지고...뭐든지 일거리를 만들어버려요.(D)

2.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가난이 노출되어 수치심 느낌

연구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공공부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난'이 노출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 이는 공공부조 낙인 경험과 수치심, 우울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연구결과였다. 참여자 B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을 위한 G-드림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점검상의 문제로 결제가 잘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하게 카드 결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앞에서 빈곤한 삶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식되었다. 자녀 앞에서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했다는 것과 자녀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는 수치심의 감정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급식 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시스템의 결함은 다른 참여자들도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느끼는 수치심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게 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이니까 급식 카드가 있어요. G-Dream 이라고. 근데 어제는 점검 시간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때문에 20~30분 기다리고, 수급자라는 게 보여지니까 카드 보면.. 근데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니까 창피한거 같은... 집에 가면서 통화하고 집에서 30~40분 통화하고.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루에

4,000~4,500원 한도 인데 거기에 맞춰서 사러니까.. 인스턴트 같은 거 품목이 있어요. 안되니까.. 애한테 짜증내고.. 더럽고 치사해서.. 겨울방학 돼서 3~4번 안되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할 라면 제대로 하던가! 열 받아 죽겠는거야. (B)

나는 안 돼, 안되더라고...6000원이야. 그래서 말았어...(중략)...라면 끊어줄게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말야. 맨날 라면도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가 봐도 안 된다 그러지. 그래도 말아...안되나 보지. (C)

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전화 돌리기는 자신의 가난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되었다. 끊임없이 '가난한 처지'와 욕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과정은 억척스럽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A,B).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난 후에는 미안함과 후회의 감정이 일어났고, 그 당시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곤 하였다(D). 또한, 전화를 할 때 마다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들은 참여자들에게 서비스 수급 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고, 자신의 빈곤을 최대한 드러내며 받아내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전달체계 상에서 이처럼 반복되는 상담 과정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문의하고 때로는 항의하면서 복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는 '복지 의존'이라는 성향으로 폄하되기도 한다[5].

사람이 바뀌면 되요. 여러 사람이 전화 넘겨받잖아요. 큰 애가 시설에 있으면서도 차비까지 주셨어요. 시설에서 차비까지.. ***선생님한테도 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심리 상담 끝나고 기다렸다가 시청 분 만났는데, 생활비 안 됩니다. 교통비 안됩니다. 그 이후로는 다 (안 된다고)...(A)

*** 선생님 뵙는데 업무를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편해졌는데. 그래서 선생님이란 결말지고 싶다고. 항상을 때마다 대답했어요. 근데 옮겨 가시면 어떡하냐고.

선생님 전화 받고 시청직원이란 전화를 했는데 그 분이 먼저 끊었다, 저는 그냥 나랏돈 받아먹고 살 거라고. 그 선생님도 그 얘기 듣고 민망한 듯 웃더라고요. 군데군데 전화를 하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리시고. 그냥 의료보험금 내려고 왔다고. 집 가는 길에 전화 왔는데 또 잘 모르겠다고 됐어요, 선생님, 애가 건강유지비나 보험에 관련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해졌는데, 괜히 그 선생님한테 미안한거야. 그래서 걸어오는 길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 했어요. 어제 많이 울었어요.(B)

등록금, 생활비, 가스비, 값았는데 또 밀렸어. 우리가 이 6학년 때 가스비 값으려고 일 할라고 나갔는데 다치고.. 그때 도움 받았어. 인터넷 들어가면 내 이름 때 있어, 다시는 내 이름 안 뜨게 한다고 다짐 했어.(D)

또한,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 사례들은 참여자들에게 묘한 부러움과 피해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들을 비난하지만, 그런 '뺨'조차도 없는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억울한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참여자들에게 좌절감을 주며, 복지 수급에 대하여 더 억척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언니한테 들은 게 있는데 그 부정수급자 **엄마.. 우리는 진짜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병원에서 근로노동평가서 그 서류하나 때문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서류 하나 때문에.. 근데 그 누구는 병원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써 달라는 대로 다 써줬대요. 우리는 죽으라는 건가?(A)

2.3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어 미안함

참여자들이 빈곤한 삶에 따른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복지 서비스 이용과 수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와 수치심, 무력감과 같은 감정은 적절하게 표출되고 해소되기 보다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언행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적 자원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우울한 감정을 자녀에게 짜증과 체벌, 욕, 소리 지르기 등으로 표현하였다. 심적으로는 자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만, 빈곤에 대한 스트레스와 중첩되면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다시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우울을 더 강화시켰다. 심지어 우울 성향이 깊어지면, 아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위협하는 일도 잦게 일어나 부모 자녀관계 및 자녀 훈육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A,B). 참여자 E는 아들이 자라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는 곧 자녀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재현되었는데, 그룹회에 위탁되었던 A와 B의 자녀는 분리 불안 증세를 보여 학교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자신을 다시 버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으며, 이는 참여자의 우울감과 죄책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어차피 내가 가야되는 길이고.. 애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도 받아야 되고.. 애가 전화로 그래요 ‘엄마 나 버릴 거 아니냐고. 아 ‘엄마가 나 그룹회에 보냈잖아..’,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작은방 가서 혼자서 울었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A)

엄마들 대부분이 스트레스 받은거 애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이번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한테 화풀이하고 애를 때렸어요. 어떨 때는 이 송곳으로 아이를 찔러 죽일까, 애를 죽이고 나도 죽일까 방학이고 해서, 애랑 있으니까 맨날 애랑 싸워요. 당연히 하면 안되는거 알면서도 애한테 욕을 해요. 요즘에는 너 조심하라고, 꽤 죽이고 싶다고. (중략)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서는 핸드폰을 꺼놔야 되는데 핸드폰을 계속 켜놔요. 담임선생님이 가정환경 조사를 했는데 애가 되게 불안해한다고.. 엄마랑 떨어 져 있는걸.. 아이가 사랑을 고파해요. 맨날 안아달라고.. **이가 방학동안 하고 싶은 거 엄마랑 안기, 안아달라고(B).

애들한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 자신이 죽기보다 싫거든요. 저 쪼그만 애들한테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언성만 높아지고..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말.. 어떤 때는 엄마가 미안해하면서 안아주고 하면서도.. (E)

한편, 자신이 경험한 빈곤한 삶의 경험들로 인해, 자녀에게만은 빈곤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진 경우에는 자녀를 단속하고 채근하는 자녀 양육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과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어려움을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음. 자녀가 특별한 말썸도 없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 하는 편이지만 본인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자녀가 올바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잘 성장하지 못할 까봐 걱정이 많음.(참여자 D 의 사례 관리 기록)

3. 수급자로 주저앉기

3.1 근로무능력 자격 평가 기준으로 인한 좌절

수급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판정 자격 기준에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서비스와 추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자격기준 안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참여자들은 공공부조서비스 이용 시, 자격 기준으로 평가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좌절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B는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직업훈련을 받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음으로써 교육이수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들이 특히 평가기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중 하나인 우울성향의 정도가 깊어 이미 약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동안은 탈수급을 할 만한 평가점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해서 다시 우울해지는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부정적 정서와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현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신과 상담했는데 우울증 초기라고, 잔업이라도 해서 벌려고 했는데 목표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다 포기중이에요. 다 죽어라 하는 거 같아요(A).

여태까지 힘들게 버텨왔지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복수하고 싶다는 거. 그래 너네가 주는대로 받아먹어 보자 하고 포기하게 되요(B).

도리어, 일을 하려는 노력들은 주위로부터 어리석은 선택으로 치부되며 그냥 수급을 받으며 살라고, '수급 받고 몰래몰래 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주저앉기는 취업을 준비하고자 했던 노력이 서류 심사와 등급 미충족으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내재화되었다.

수급과에서는 희망적으로 얘기해주고 훈련받아서 취업하는 게 나올거라고. 그 쪽에서는 안 된다고...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30이 넘는다고.. 점수가 뭐가 중요해요. 지원해달라고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겠다고 도움 요청하는건데...나라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아가 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먹고 살게끔 시작이라도 도움을 줘야지..(중략)..조건부에서 일반수급자로 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겠다고 왜 시작도 못하게 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B)

반복되는 도움 거절의 좌절과 그에 따른 두려움과 수치심은 그 개인을 무능력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주어질 것에 만족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옴을 알 수 있었다[26].

3.2 심리정서관리의 미흡과 근로무능력상태의 장기화

위처럼 가난한 엄마로 내재화되는 과정, 개인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수치심, 서러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이 더 악화되어가고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우울은 잘 관리되지 못하였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과 공공기관을 통하여 심리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자신의 속내를 믿고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상담과 복지관의 자조 집단은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바우처를 통하여 받는 심리상담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잘 받을 수 없었고, 증상이 조금만 나아지면 중단하다가 악화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등 간헐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심리상담은 악화된 순간을 잠시 피해가는 임시방편이 되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참여자들은 우울증 약 복용도 꾸준히 하지 않아 우울에 대한 자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대고는 싶은데 그런 데는 없고, 말하고는 싶은데, 속 내를 다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기대고 싶은데 내가 등대마냥.. 왜냐면 나없으면 엄마도 아빠도 애들도 다 무너지니까.. 병원에서도 다리 때문에 가야되는데 병원 가면 당장 엄마, 아빠는 어떡할까.. 애 입학식도 못 갈까 봐. 심리 상담 할 때는 잘 웃고 하니까 약을 줄였어요. 지금은 포기 단계예요. (중략) 심리상담 했었는데, 밝아져가지고 쉬어가기로 했는데.. 쉬는 동안 힘들어져 가지고.. 심리 상담 날짜 잡아달라고 연락했구요.(A)

병원에서도 약을 쥐도 제대로 못 먹잖아. 밥을 안 먹으니 자꾸 약도 안 먹고. 병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커피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100개 짜리를 사다 놓으면 3일이면 다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커피 때문인 거 같아요. 안 그래도 나 커피를 끊으려고. 다른 차로 대체. 녹차나 보리차. 커피 대용으로 보리차가 좋다고 (D)

이처럼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들의 부정적 정서는 점차 장기화되고 내면화 되어 가고 있었다. 이는 결국, 근로판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의 반복을 가져오고, 그냥 현재를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도록 하는 상황이 되었다.

3.3 수급탈락의 불안 속에 '최저생활의 선'에 머물기

탈수급을 막는 악순환의 현실들이 반복되고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참여자들은 수급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빈곤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격기준에 따른 평가는 언제든 수급권에서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급권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자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처 양식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사실 이혼하자 했는데 안하고, 돈도 안 갖다주고, 1% 제단에 신청했어요. 집세 때문에 밀리고 밀리고, 내고 모자란 거 채우고. 전깃불이 끊어져가지고, 깜깜한데... 와~ 말도 못해요. 그나마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고 들어

오고 이래요. 다 살리고. 그래도 신용불량자니까.. 내가 기다려라 다 갚으마. 그래도 이상하게 집 살 때도 동사 무소 신청하는데, 전세 자금 안됐어요. 근데 가을에 우편물 왔는데 됐어요. 주산APT됐잖아, 10년 살 수 있는 거, 신기하게도 일이 풀려요. 남편이 경마를 했어요. 그래도 믿고 참았는데, 내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을 말도 못하지. 하나님... 진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이제는 다 해결하고 다 즐거운 일만 남아있어요.(C)

참여자들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살아가면서 수급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탈빈곤을 제한하는 수급제도의 한계에 화가 나는 양가감정을 가지면서, ‘탈빈곤의 희망’이 아닌 ‘수급탈락의 불안’ 속에서 수급자로 주저앉은 삶을 수용하며 그 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의 공공부조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중장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문제로 근로무능력 상태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탈수급에 대한 희망을 가지며, 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반복적으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탈수급을 막는 악순환의 현실로 인하여, 탈수급은 좌절되고 빈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이미 건강하지 않은 신체와 어떤 시도를 해도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 사면초가에 놓여있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사적 지지체계의 부재 등으로 공적부조서비스 체계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난이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자녀에게 가난한 엄마로 인식되어지는 과정을 겪으며 수치심을 느꼈다. 또,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 시스템의 오류, 잦은 담당 공무원의 교체, 부정 수급권자 등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강화시켰다. 또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는 적절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자녀에게 부적절하게 표출되어 자녀의 심리정서적 불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자녀의 문제는 결국 이들의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이들은 탈수급을 좌절시키는 삶의 한계들과 함께 탈수급을 제한하는 복지제도의 제한적인 원칙들과 부정적 정서가 잘 관리되지 못하여 수급자로 주저앉아 가고 있었다. 즉, 자격 기준으로 평가되며 서류 심사에서의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수급탈락에 대한 불안’을 안은 채 차라리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없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의 현실과 공공부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들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강화되는 상황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그들이 처한 현실과 중첩되며 내면에 강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 참여자중 2, 30대의 경우 본인들은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아신뢰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근로능력판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근로무능력상태이기는 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들이 일을 통해 건강과 근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작업 치료적 접근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무능력 상태의 수급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출구는 오로지 담당공무원과 지역사회복지관의 전문가이다. 이중 담당공무원은 관련 정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와 잦은 이동 문제로 수급자가 갖는 기대나 열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원의 불충분 문제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1인이 관리하는 수급자 비율을 낮추도록 하고 담당공무원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와 약물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의 우울은 점점 더 심화되고 근로 무능력의 상태를 장기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는 자녀 양육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상담도 효과가 있지만,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과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심리정서적인 건강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넷째, 우울증이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부담감이 많았고,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자녀들 또한 정서적인 불안과 문제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모-자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녀 양육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010년도 이후 도입된 근로무능력판정에 따른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실태는 행정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을 수급자의 범주 내에서 다루기보다는 근로무능력판정의 사유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근로능력판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공부조서비스를 받는 빈곤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대상자가 소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에 근로능력의 판정문제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방법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2013.
- [2] 성정현, 송다영,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25, pp.81-106, 2006.
- [3] 성미애, 진미정, “빈곤 한부모 여성의 부모권 보장과 일·가족 양립”, 가족과 문화, Vol.21, No.3, pp.1-28, 2009.
- [4] 김정현, *가난한 이혼 여성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기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5] 유연정, *복지낙인이 여성가구의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2005.
- [6] 김은정, 진미정, “빈곤 여성가장 가족의 소득구성과 물질적 곤궁 경험”, 사회복지연구, Vol.27, pp.163-188, 2005.
- [7] 최은주, *빈곤여성가구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8] 송다영, 김유나,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관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거버넌스 실현의 현실적 간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3, pp.177-200, 2008.
- [9] 김지연,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0] 허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자 분리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황과 복지”, Vol.30, pp.197-229, 2010.
- [11] 이상은, “근로능력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연구, Vol.20, No.3, pp.27-56, 2004.
- [12] 강신옥, 성명재, 이철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 [13] <http://www.mw.go.kr/>
- [14] 참여연대, “빈곤층에게 책임 전가하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2009.12.31.보도자료.
- [15]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에 근로능력 판정기준에 대한 정책권고 요청”, 2010(1.7).
- [16] 염춘미,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중부신문, 2013(2.19).
- [17] K. McCormac, “Resisting the Welfare Mother: The Power of Welfare Discourse and Tactics of

Resistance," *Critical Sociology*, Vol.20, Iss.2, pp.355-382, 2004.

[18] R. Rogers-Dillon, "The dynamics of welfare stigma," *Qualitative Sociology*, Vol.18, No.4, pp.439-456.

[19] J. Stuber Stuber and M. Schlesinger, "Sources of stigma for means-tested government program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3, No.4, pp.933-945, 2006.

[20] 조문영, *가난의 문화 만들기-빈민지역에서 '가난'과 '복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21] 이혜경, *복지stigma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22] 이희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의 사회적 배제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제25권, 제1호, pp.281-315, 2009.

[23] C. S. Crandall and R. Coleman, "AIDS-related stigmatization and the disruption of social relationships," *J.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9, pp.163-177, 1992.

[24] C. Baxter, "Investigating stigma as stress in social interactions of parents," *J. of Mental Deficiency Research*, Vol.33, pp.455-466, 1989.

[25] B. G. Link, E. L. Struening, M. Rahav, J. C. Phelan, and L. Nuttbrock, "On stigma and its consequence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study of substance abuse,"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Vol.38, pp.177-190, 1997.

[26] 장운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7] Nichols-Casebolt,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Income Testing Income-support Benefits," *Social Science Review*, Vol.60, No.2, pp.287-302, 1986.

[28] 이원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Vol.62, No.4,

pp.249-274, 2010.

[29] K. D. Mickelson and S. L. Williams, "Perceived stigma of Poverty and Depression: Examination of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Mediators," *J.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7, No.9, pp.903-930, 2008.

저 자 소 개

성 정 현(Jung-Huyn Sung)

정희원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여성한부모, 이혼문제, 가족복지

김 지 혜(Ji-Hye Kim)

정희원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여성한부모, 가족복지, 가족상담